

意識發展의 辨證法的 過程(七)

헤겔哲學의 한 顛倒的 應用

梨專教授 裴相河

그럼으로 世界鬪爭의 自己意識은 世界享樂 世界改造의 모-든 缺陷을 □□ 하며 同時에 이 모-든 缺陷에서 脫却된 換言하면 『向揚』된 自己意識이다. 따라서 世界享樂의 意識과 가티 恣意的도 아니요, 世界를 如實히 肯定함도 아니요, 또는 世界改造의 意識과 가티 主觀的도 아니요, 客觀을 洞察치 안함도 아니다. 徹底한 自然性, 또는 必然性에 좇아 必然的인 歷史的 過程에 서서 過去現在의 모-든 世界를 情密히 檢察한 뒤 그것의 缺陷과 破壞를 닦우는 싸움이다. 缺陷은 缺陷인 限에 잇서서 스시로히 消滅하고 말 것은 自明하다. 그러나 缺陷이 缺陷인 것을 自覺하지 못함으로써 盲目的으로 그의 存在性을 主張하고 잇는 缺陷도 또한 업다. 할 수 업는 바이매 이와 가튼 □□업는 缺陷에 對해서 鬪爭은 存在의 意識를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 世界鬪爭은 鬪爭하고 심흐기 새문에 鬪爭하는 徒然의 鬪爭도 아닐 것이며 鬪爭이 조흔 것이기 새문에 鬪爭하는 好事家의 鬪爭도 아닐 것이다. 主觀的 意識(正)과 客觀的 現實(反)과의 對立에서 辨證法的 生成過程으로 말미암아 『自然的』·『必然的』으로 生겨나는 不可避의 鬪爭일 새름이다. 이와 가튼 主觀 客觀의 □毒한 對立矛盾은 鬪爭으로야만 打破 할 수 잇기 새문이다. 헤라클라이터스(古代希臘의 哲學家)의 말, 『모-든 것은 鬪爭으로써 存在한다』·『鬪爭은 모-든 것의 어머니다』·『對立鬪爭은 未久의 結合을 뜻한다』·『모-든 것은 鬪爭과 必然性에서만 生成한다는 것을 認識하지 안하면 안이 된다』 등은 吾人의 論述을 保證하고 잇다.

마지막 主意 할 바 잇스니 먼저에도 말한 바와 가티 이곳에서 뜻한 바 自己意識은 個個의 意識이 안이요, 共通된 普遍的 意識이라 함이다. 그럼으로 어셔한 意識이든지 能히 現下의 現實을 洞察하엿스며 能히 矛盾을 把握하엿슬진대 이는 맛당히 世界鬪爭의 意識까지 向揚되지 안이치 못할 것은 自明

의 論理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必然性을 속이며 不可避를 □하려하며 넷날 世界의 殘汚物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世界鬪爭의 必然的 意識에 눈감고 있는 別다른 意識이 存在한다 한들 이와 가튼 意識은 現實의 矛盾을 洞察치 못한 無智의 意識이거나 또는 그러치 안타면 現實의 矛盾을 能히 洞察하였 스며 現實難持의 非永久性을 認知하였슴에도 不拘하고 能히 自己自身이 沒入하여 있는 넷날 世界의 殘□을 清算하지 못함으로써 世界鬪爭의 □□한 意識을 斯시로히 속히고 있는 自期의 意識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으로 이미 世界鬪爭의 意識까지 向揚된 新人의 意識일진데 구타여 뒤쳐진 無智自期の 意識을 問題삼을 배 업스나마 그래도 한거름 더 나아가 그네들의 無智를 理論的으로 □發하며 그네들의 自期를 實踐的으로 克服함이 新人의 義務와 權利임을 附記한다.

×

먼저에도 말한 바와 가티 世界鬪爭의 意識은 現代의 意識이라 한다. 換言하면 現代의 意識은 모-든 辨證法的 生成過程을 격거 只今에야 世界鬪爭의 意識에서 一段落을 終結하고 있는 意識이다. 여기서 또한未來에 어전한 意識이 延續 될지는 未來에 □한 □題이때 未來人안인 普人으로서는 이에 容納할 權限이 업슬 것 갓다. 設스나 自身에게는 이의 權限이 있다고 한들 客觀的 現實만은 容納지 안홀 것이다.

×

以上으로써 本論을 닫치갓다. 貧弱한 內客과 서투른 論理로써 이미 向揚된 意識이면은 발서 깨닫고 잇슬 바를 累累히 論述한 것이 도리혀 붓그러 옳다. 그러나 本論이 뜻한 바는 自己意識이 어저한 哲學的 必然性으로 말미암아 世界鬪爭에 까지 니르지 안호면 아니 되었는가? 외『必然性』만을 究明함에 잇섯스니 本論의 讀者로써 이 點만을 認識 또는 再認識 할 수 잇섯다 할 것 가트면 本論의 目的은 그만일가 한다.

『必然性』은 『不可避』를 意味하고 『不可避』에서야만 모-든 썩리 깊은 生活이 生겨날 수 잇기 새문이다.